

# 文대표 운명 가를 결전의 날... 주류-비주류 화력집중

## 내일 혁신안 처리 중앙위원회... 새정치 내분 분수령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을 둘러싼 내분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14일 비주류 진영이 국정감사 뒤로 재신임 투표를 미뤄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맞서 주류 진영에서는 “비주류가 도를 넘어선 흔들기를 한다”고 역공에 나서고 있다. 특히 비주류 진영에서는 비밀투표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16일 중앙위를 거부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내전 격화=지난 12일 문 대표와 중진들이 ‘16일 중앙위 개최 및 재신임투표 연기’에 합의하면서 재신임을 둘러싼 갈등은 봉합되는 듯했다.

그러나 13일 안철수 전 대표의 중앙위 연기 공개서한과 이 원내대표의 ‘유신’ 발언을 계기로 대치가 격해졌으며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문 대표가 불참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이 원내대표는 비공개회의에서 ‘유신 발언’에 대해 사과했지만 주승용 최고위원의 주재로 진행된 공개회의에서 팽팽한 대치 전선이 형성됐다.

비주류인 주 최고위원은 “수신제가 치국평천하가 리더의 덕목”이라며 “국감과 정기국회를 포기하고 당내 문제로 갈등을 하면 총선에 이길 수 없다. 모든 당내 문제는 일단 국감 뒤로 미뤄야 한다”고 중앙위 연기를 주장했다. 그러나 주류인 전병헌 최고위원은 “비합리적 논거로 지도부를 계속 흔드는 악순환의 고리와 퇴행적 문화를 정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긴장감 고조=문 대표의 운명을 가를 중앙위가 다가오면서 계파별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우선 김영춘 부산시장 위원장 등 7개 지역 시도당 위원장은 공동성명을 내고 “당 대표와 중진위원이 합의한 일정을 흔드는 일은 즉각 중지해야 한다”며 “혁신안을 전폭 지지한다”고 밝혔다.

초·재선 의원들로 구성된 ‘더좋은미래’ 역시 전

## 李원내대표 ‘유신’ 비유 발언

### 文대표, 최고위 불참 사태

### 긴장감 고조 속 장외 실천 격화

날 회동해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 지지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비주류 모임인 ‘민주당의 집권을 위한 모임’(민집모)은 이날 회동을 갖고 “중앙위 개최 시점을 국감이 끝나는 오는 10월 8일 이후로 연기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함께했다.

민집모 소속 문병호 의원은 “문 대표가 중앙위를 연기하지 않고 강행할 경우 중앙위에서 무기명 투표를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며 “만약 무기명 투표가 받아 들여지지 않으면 투표 참여를 재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장의 실천=장의에서도 주류와 비주류 진영의 거센 실천이 이어지고 있다. 최재성 총무본부장은 이종걸 원내대표의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제안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신을 떠올리게 한다’는 발언에 대해 “책임은 문졌다”고 날을 세웠다.

조국 혁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안철수 전 대표를 겨냥한 듯 “당인이라면 당내 절차를 존중하라”면서 “싫으면 탈당을 신당을 만들라”고 주장했다.

반면 비주류의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에서 “문 대표가 결단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며 “문 대표와 함께 했던 분들도 (결단을 요구하는) 생산적 의견을 밝히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라고 남겼다.

박영선 전 원내대표는 라디오 방송에 출연, 혁신위의 공천혁신안에 “첫 단추를 잘못 꿴다”며 “국민공천단 자체가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차라리 오픈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낫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14일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표가 빠진 가운데 이종걸 원내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이 발언 순서를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병헌·주승용 최고위원·이 원내대표·오영식 최고위원. /연합뉴스

##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 기간 연장·파견 근로자 확대 ‘대치’

### 노사정 노동개혁 합의 내용

13일 노사정 대타협이 성공함에 따라 노동시장 개혁이 본격적인 시동이 걸렸다. 노동개혁의 로드맵은 한마디로 쉬운 개혁부터 달성한 후 어려운 개혁으로 나아가는 단계적 개혁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는 합의=노동개혁에서 노사정 합의가 이뤄져 당장 입법 추진이 가능한 사안은 ‘통상임금 범위·근로시간 단축·실업급여 강화·출퇴근 재해 산재 적용’ 등이라고 할 수 있다. 통상임금은 근로 제공의 대가로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을 말한다. 이전에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에 포함됐으나,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로 상여금·근속수당·교통비·식비 등도 통상임금에 포함됐다.

노사정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이라고 정의했다. ‘근로자의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금품’은 제외하고, 이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키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나눌 수 있도록 휴일근로는 연장근로에 포함된다. 지금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주 12시간까지 허용하는 연장근로에 휴일근로가 포함되지 않았다. 정상근로 주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 휴일근로 16시간까지 합치면 최대 근로시간은 주 68시간까지 늘어났다.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제한하면 근로

시간을 주 52시간(정상근로+연장근로)까지 줄여야 한다. 다만, 근로시간 단축을 급격히 추진하면 임금 하락 등 부작용이 있는 만큼 기업 규모에 따라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노사 서면합의로 주 8시간 내의 ‘특별연장근로’를 4년간 한시적으로 허용한 후, 4년 후 지속 여부를 재검토한다.

임금피크제를 통해 절감된 재원은 청년고용에 활용키로 했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인상을 자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 확대에 노력키로 했다.

◇‘비정규직 사용기간·파견근로 확대’는 노사 합의로 대안 마련=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근로 확대는 노사정의 공동 실태조사,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한 후 정기국회 입법에 반영키로 했다. 노사정 간 이견이 큰 것을 감안한 타협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35세 이상 기간제·파견 근로자가 원하면 노조위원장 등 근로자 대표의 서면 합의 하에 현재 2년인 사용기간을 4년으로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할망정, 사용기간 연장이라는 일종의 ‘면죄부’를 쥐고 고용 불안이 시달리는 비정규직만 더 늘리도록 하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파견 근로자 확대도 합의안 마련까지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 첫 관문 통과한 노동개혁안... 여야 입법전쟁 예고

### 노조·야당 반발 재충돌 가능성

노사정위원회에서 노동개혁안이 합의되고,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대타협안이 통과되면서 국회 차원의 입법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입법과정에서 세부내용을 둘러싸고 노사의 입장이 재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데야당의 반대도 있을 수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협력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오는 16일 노동개혁 관련 법안 내용을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기 위한 정책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이번 합의안을 반영해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노동개혁 관련 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노동개혁 드라이브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노동개혁 입법작업을 완료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에 힘을 실것

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분석된다.

반면에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사정 대타협에 대해 “정부의 ‘쉬운 해고’안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며 입법과정에 노동자의 입장에서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국민 삶의 안정과 고용의 질을 ‘하향평준화’한다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이 발의할 노동개혁 관련 법안은 근로기준법·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등 총 5개다. 이 법안을 논의하고 처리해야 할 상임위는 환노위다. 그런데 환노위는 새정치연합 소속인 김영주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가 16명 가운데 여당이 8명, 야당이 8명 여야 동수로 구성돼 있어 국회선진화법이 없더라도 야당이 반대하면 법안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여서 향후 입법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영기자 jkpark@kwangju.co.kr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 ↔ 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목) 399,000원에 간대!~**

(선착순 30명 한정)

## 기타큐슈 편도 항공권 69,900원~

(TAX, 유류세 별도) [매회 선착순 5명 한정]

###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선착순 30명 한정]

(목) 459,000원 (토) 549,000원

### 기타큐슈 올레길(가라츠+히라오다이 트레킹) 3일

(목) 529,000원 (토) 629,000원

### 큐슈 정통(기타큐슈/벳부/유후인/후쿠오카) 초특가 4일 [선착순 30명 한정]

(월) 549,000원

###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 799,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움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